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복음으로 여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1:9, 요한복음 16:33

정 윤 돈 목사님

* **수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 **요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제로 창조해 주셔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현장과 천명, 소명, 사명과 후대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직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문제를 주시는 이유와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절대미션과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먼 목표가 아닌 오늘 성취될, 내가 도전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니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붕에 앉아 쉬고 있고, 반면 어느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니 마귀가 바빴다고 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한다. 큰 응답 전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 작은 문제 뒤에 큰 응답이 오고, 큰 문제 뒤에는 더 큰 응답이 온다. 이때 꼭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게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 이면계약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내게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 사실 여러분에게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만 주지 않으면 감사하다.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여러분은 반대로 힘을 얻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지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다. 이유나 조건 없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 이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다. 미래에 대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이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다. 세상을 걱정할 필요 없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오순절 기도회 주간에 조지 물러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는 평생 동안 고아를 도우며 세계선교를 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도우며 기도로 오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조지 물러는 ‘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후원해 달라고 알리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다. 여러분은 겨우 자신, 우리 가정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아무나 이런 믿음의 사람

이 되는 게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 두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주일예배에 성공한다면 인생에 성공한다.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라. 여호수아도 이 질문을 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 지금 한 시간 예배 드려도 정말 질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체휼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확실히 말씀해 주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세상 아무 것도 아니다.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간다. 그러니 여러분은 단 1분, 1초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라. 나름대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많은 것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다. 병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 우리의 목적은 훌륭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 고문을 당하고 죽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 들어도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한다. 그렇다고 꼭 가난하고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 이루신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1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요단 동편부터 중부지역, 남부와 북부지역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역사하셨다. 모세는 광야를 돌았는데, 광야를 도는 게 쉬울까, 전쟁이 쉬울까? 전쟁이 더 두렵다. 이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다. 마지막 부분인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인 24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 바란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것 섬기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손에 박힌 못을 보라’는 의미가 된다. 즉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오직 예수를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러면 다 끝난다. 다른 것 필요 없다. 그래야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뭔가를 더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한다. 나머지는 지나가는 것이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의미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진정한 정복과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어느 순간 생긴 게 아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광야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믿음의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복음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1)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먼저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결론내야 한다.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아직도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아직 복음이 덜 각인된 것이다. 하나님께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는지 질문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지배 아래 우상숭배하며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하는 순간에 있었고, 열 재앙을 봤고, 유월절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가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과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들이 행하는 세례와 부활의 상징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 여호수아에게는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얻게 된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출애굽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진정한 복음을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어린 램넛트들 뿐이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겠다.

(2) 613가지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복음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가 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신명기 18장 5절에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모세도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 참 제사장과 참 왕이 아니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부족했다. 오직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다.

(3) 또한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피 제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피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짐승을 드리는 제사로는 언제든지 그들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직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분 상황이라면 여호수아는 너무 감사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수많은 제물을 잡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렇게 예배가 쉬울 수 없다.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예배와 주일에 정확하게 감사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성막과 제사 봉사를 하면서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깨달을 때 광야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복음을 깨달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 것이다. 무엇을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잘하라는 정도가 아니다. 목숨을 걸고 팀을 짜서 전쟁하라고 하신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도전도 안 하고 정치도 사업도 안 해야 할까?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사장은 직원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직장생활은 쉬울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와 여유가 없으면 포기하게 된다.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그냥 집에 있다. 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목숨을 걸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단계이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한다. 못 한다.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 살며 가정을 이끌고 사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할 게 얼마나 많다. 다 짊어져야 한다. 못 한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1) 첫째로 영적인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선 율법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더 큰 축복이다. 교회 오면 다 생소하고 여러 만남도 처음이고 힘들다. 신앙생활을 해도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리고 불신앙과 죄, 사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우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운명, 시주, 팔자, 점술, 날과 방향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어떤 분은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과 방향을 택해서 간다고 한다. 무서워서 그렇다. 제사, 귀신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성경은 제사를 두고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운명, 시주, 팔자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고 운명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해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사탄을 박살내셨기 때문이다.

(2)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다들 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담임목사로서 성도들의 문제를 보고 무게를 달아본다고 생각하면 다들 거의 비슷하다. 10대의 문제, 20대의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다. 각자 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며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앞의 문제가 크고 이해가 안 될수록 여러분에게는 축복받는 기회다. 그때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게 다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정문제, 직장문제, 교회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시험을 볼 때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시험범위를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필요한 건 시험범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예상문제를 다 풀어본다. 그렇게 해서 백 점 맞는다. 여러분도 생애주기를 따라 예상문제를 다 풀어보시라. 미리 대비하고 기도하라. 제가 기도회 때 기도해보니까 5분 이상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기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웃과 대통령, 나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 친척과 가족, 6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게 많다.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도로 미리 끝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저희 아버지처럼 기도하면 된다. 저희 아버지는 진짜 큰 문제가 오면 얼굴에 변화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셨다. 오히려 큰 문제 앞에서 냉철하게 감시하고 여유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문제 있다고 걱정하면 문제가 커진다. 반면 한 사람이 문제 앞에서도 문제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문제를 없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3)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것이 만일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와 가이사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서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에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돈 후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를 때 성은 무너졌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그냥 도는 거였다. 보통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고 원망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각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와 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지금 미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다. 바울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전도해야 한다. 멋있게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후대가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여호수아처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

① 삼척 입은 개인과 가정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희 어머니가 합숙에 갔는데 어머니 고등학교 친구가 합숙하는 곳에서 훈련교재를 팔고 있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우울증에 빠져있을 때 캠프 팀한테 축호전도를 받았더라. 현장에 강하고 담대히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릴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현상이 너무 많다. 그 일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

② 우리에게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력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세상 앞에서 언약과 기도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③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크고,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10년, 20년, 30년 해야 한다. 자녀양육, 신앙생활, 직장생활을 해도 담대함, 인내가 필요하다. 가정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하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라. 양육하는 게 힘들지만 잠깐이다. 모든 과정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두려워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있다.

④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는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번 주에 인도를 가는데, 인도를 기본 사람들이 인도가 병도 많고 문제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으니 가지 말라고 하더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평생 선교현장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야 한다. 영적인 문제가 선교현장에 너무 많다. 강하고 담대하게 어느 현장이든지 가서 살리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와 언약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이 비밀로 완전히 끝내고 목숨 걸고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고 후대를 양육하고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도록 용기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